금주의 법구-〈법구경〉
쉬지않고 계속하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저 시냇물이 마침내 바다로 가듯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7월 2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1호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1인 1수행법 생활화로 불교 신행 혁신 이끈다

조계종 7대 포교원, 장고 끝 종책 발표

'신행 장려' 움직임 맞춰
깨어있는 불자 육성 초점
1회성 이벤트 사업 지양

새로운 불자상 정립에 집중
올해 말까지 신행 로드맵 구축
포교지도 완성도 주요 사업

지난 3월 새 포교원장에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이 취임하면서 변화의 기대를 모았던 조계종 포교원이 5개월 장고 끝에 포교종책을 내놨다. 혁신적인 것은 없었지만 지지부진한 불자들의 신행을 혁신한다는 게 모토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8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포교원 포교종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서 포교원은 제1기조로 신행혁신운동과 새로운 불자상 정립을 내세웠다. 이는 세간에 확대되고 있는 불자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등과 궤를 같이한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올해 말까지 신행혁신운동 로드맵을 구축하고, 불자상 정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행지침을 마련해 일선사찰에 전달하고, 전법중심도량을 신행혁신추진도량으로 삼아 2019년까지 200개 사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아 실천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종법령을 재정비해 불자들의 신행운동을 지원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밝혔다.

지홍 스님은 "자리와 이타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도방법과 1인 1수행법을 생활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체적인 불자, 마음이 평화로운 불자, 앎과 수행이 일치되는 불자, 사회 속에서 깨어있는 시민보살로 대승행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불자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포교원의 종책기조는 수행과 지계에 대한 불자들의 낮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조계종불교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경전을 읽지 않는 불자가 절반을 넘었고, 신앙생활 만족도 역시 불교가 최하위였다. 따라서 비불교인의 불교유입보다 불자를 더 불자답게 하는 내실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이벤트성 행사도 지양키로 했다.

포교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전법현장서 활용되는 콘텐츠를 발굴 · 공유해 전국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종교에 비해 뒤처진 뉴미디어를 활용해 새 포교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또한 신도교재 개편과 포교단체의 자립 · 자율성을 강화해 재가불자들이 전법 주체가 되도록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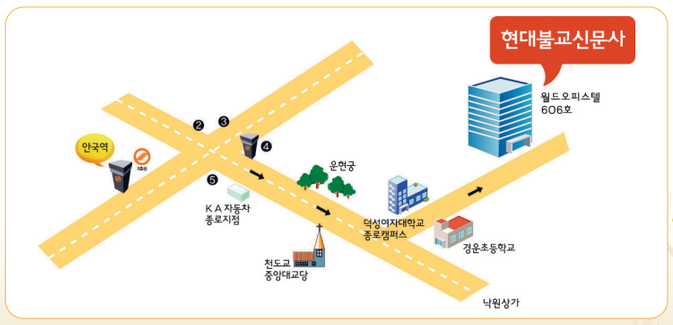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전법대안 마련과 포교지도 구축도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와 공동으로 '대학생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대불련-군종교구-대한불교청년회로 이어지는 신행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각종 공모전 활용, 대학 무료 템플스테이를 통한 신입생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포교지도는 현재 부서별로 정리해놓은 지역사찰 · 불교대학 · 법회 · 복지시설 · 명상센터 등 현황을 취합,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된다.

지홍 스님은 "7대 포교원은 일회성 행사를 최대한 지양하면서 향후 10~20년을 내다보고 씨앗 뿌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다만 필요성이 제기되는 일이라면 화주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치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멤버십신도증 발급자가 지난해 기준 27만명에 불과하고, 교무금 재납부율 또한 20%대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관리부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기 포교차장은 "사찰신도로 등록된 불자가 종단에는 등록되지 않으면서 괴리감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교무금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고민하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을 드러내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사고
본사 사옥 이전
현대불교신문사가 신사옥을 마련해
8월 26일 이전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진각종, WFB 서울총회 개최 준비 본격화

9월 26~30일 총인원 일원서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주최하는 제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서울총회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각문화총인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를 위해 진각종은 총회 홈페이지(http://28wfb.org)를 개설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안내, 통역, 안전요원 등이며 간단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8월 말 최종 발표된다. (02)942-0144~5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 새롭게 하는 원동력 되길"

한국에서 용맹정진한 외국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화계사는 8월 18일 하안거 해제를 기해 서울 홀리데이인 성북점에서 공승법회를 개최했다. 공승법회는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100명의 스님들이 안거 후 함께 제를 베풀고 재가자들은 공양을 올렸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화계사는 매년 안거 해제 후 법회를 열고 있다. 화계사 신도들이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등 스님들에게 떡과 과일이 담긴 공양물을 올리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화계사와 무상사 국제선원에서 수행정진한 외국인 스님 40명 등 50여 스님들과 신도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명인 발언에 매몰… 불자 도리 아냐"

오현 스님, 해제 법문서 현 세태 비판… "거품 말고 실상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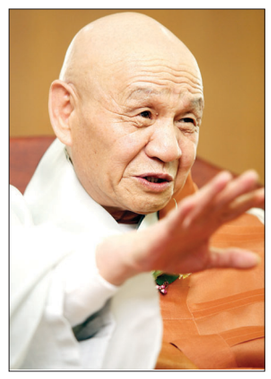
"제가 무문관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한국 불교는 허례허식에 물들고 돈에 물들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금전에 물들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앞에 앉아 있는 선방 수좌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오후 불식하며 3개월간 용맹 정진한 과정을 들어보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항간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선방서 호의호식하지 않습니다. 잠도, 밥도 모두 한 방서 지내며 함께 자고 먹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내빈들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루도 못 버티실 겁니다."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스님〈사진〉이 8월 16일 인제 백담사 검인당서 열린 조계종 3교구본사 신흥사 · 종립 기본선원 하안거 해제법회서 법문을 통해 최근 한국불교를 비판한 현각 스님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주목을 끈다.

무산 오현 스님은 "전국 제방 선원서 지내는 스님들을 세어보니 정확히 2202명인데, 등록된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아마도 3000명이 넘는다.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유명대학 출신이라든지, 신문에 글 좀 싣고 하는 지식인들이라면 '이상한 소리'를 해도 매몰돼 끌려가는데, 이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님은 "특히 지식인들이 유원지에 놀러가서 먹다 남은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듯이 한국불교를 말한다. 그러면 유원지는 곧 더러워져서 썩은 거품이 부글부글 일게 된다"면서 "사람들은 그 부글부글 이는 거품만 보고 스님들을 판단해 금전에 물들었다고 평하는 것이다. 바깥 거품의 면모만 보고 함부로 매도한다"고 성토했다. "너무 황당한 일이기에 이렇게 내가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무산 오현 스님은 대중들에게 실상을 볼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겉에 있는 거품을 보지말고 실상을 보라"면서 "아지랑이나 거품을 보고 그것이 실상인줄 알면 안된다. 산에 물이 흐르면 흙탕물만 보지말고 바위 아래 맑고 고요한 물을 봐야 한다. 불법(佛法)은 그렇게 돌덩이 밑으로 사자전승(師子傳承)하며 흐르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각 스님 발언 염두한 경책
3천여 수좌 용맹정진 '희망'
"겉 보고 한국불교 매도말라"

조계종 제 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와 백담사는 8월 16일 하안거 해제법회를 조계종립 기본선원이 자리한 인제 백담사 검인당에서 봉행됐다.

한편, 하안거 해제일인 8월 17일, 대구 동화사와 합천 해인사 등의 조계종 전국선원은 하안거해제법회를 열고 안거를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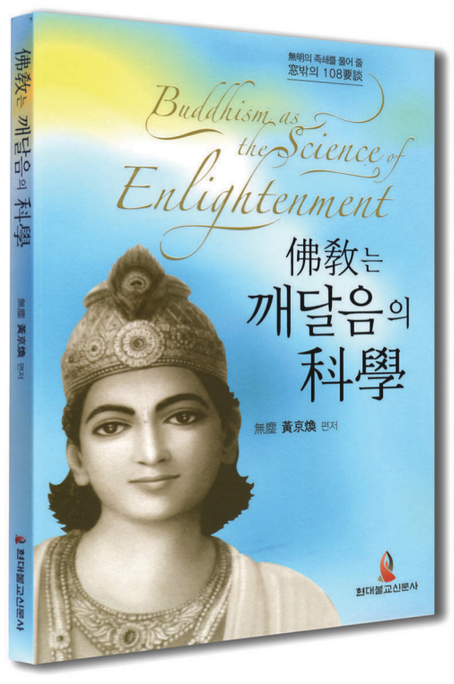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정리한 불기 2560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100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3곳)에서 총 2202명의 대중이 방부를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행을 앞두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은 수좌 스님들을 격려하는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해제일에 상관하지 말고 다시 발심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거는 스님들이 매년 여름과 겨울 석달동안 산문밖 출입을 끊고 오로지 화두수행만을 하는 수행문화로 북방불교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종정 · 총림 방장 하안거 해제법어 7면〉

인제 백담사=김주일 기자



무진 황경환 편저 | 신국판 | 280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근본불교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길어올린 영원한 자유인의 길

無明의 족쇄를 풀어 줄 窓 밖의 108 要談
佛教는 깨달음의 科學
Buddhism as the Science of Enlightenment

황경환은 하늘이 손수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가 펴낸 수상집(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의 원고를 읽어 보며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가 원효나 의상 같은 고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칸트나 헤겔 같은 논리를 가졌다는 말도 아니지만, 신라의 옛 서울에 터를 잡고 작은 사업을 하나 일으켜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본받으려는, 또 하나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인간 황경환의 모습이 아름다워 이 글을 쓰는 바이다.

–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주문
054)744-8211~2
팩스
054)744-8213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총판 운주사 02-3672-7181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요담을 읽다보면, 많은 경전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에도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
– 퇴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근본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그가 인용한 불설은 주로 5부 니까야라는 문헌인데, 부처님의 초기 음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내용들이다. 둘째는 불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다.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요청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풀어쓰려고 하는 노력이 값지다. 따라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겠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鄭柄朝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거친 4해(四海)를 오온(五蘊)의 쪽배 타고 노젓는 뱃사공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파(世波)가 그대 앞에 닥친다 해도 그것에 정복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꿋꿋이 걷고 또 걸어서 언젠가 그대가 의지하고 있는 오온의 쪽배가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법을 보고 법을 알아 도(道)와 과(果)를 성취토록 하소서."



– 발원문 중에서